

2006년 2월  
석사학위논문

# 간호에서의 돌봄의 특성

-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신 해 진

2006년 2월

석사학위논문

간호에서의 돌봄의 특성

신해진

# 간호에서의 돌봄의 특성

-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of Caring in Nursing

- Focused on the Ethical Aspect -

2006년 2월 일

조선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신해진

# 간호에서의 돌봄의 특성

-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공    병    혜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0월    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신    해    진

# 신해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 내 용 목 차

ABSTRACT .....	ii
제 1장 서론 .....	1
제 2장 본론	
제 1절 간호실천에서의 돌봄의 이해 .....	4
제 2절 윤리학에서의 돌봄의 이해	
- 여성적 윤리학을 중심으로- .....	6
2-1. 길리간의 돌봄의 윤리 .....	9
2-2. 노딩스의 관계의 윤리 .....	21
제 3장 결론	
- 여성적 윤리와 간호에서의 돌봄의 윤리 -.....	29
참고문헌 .....	32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Caring in Nursing - Focused on the Ethical Aspect -

Shin Hae-jin

Advisor : Prof. Kong Byung Hye Ph.D.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eculate characteristics of care in nursing through application of feminine ethics, in particular, Gilligan- and Noddings' care ethics. These days, technical medicine centering on treatment and cost effects of medical services are excessively focused and nursing is specified into one of professional jobs, which seriously causes dehumanization and aristocratic phenomenon. As a reaction against it, some movement to identify essence of nursing is rising and what is suggested as the nature of nursing is a concept of care. Although there is difference in suggestions between scholars, most of the nursing scholars suggest the nature of nursing is care. Care is an ontological characteristic that defines the essence of nursing and at the same time an ethical characteristic of moral value of nursing. It is because care is accompanied by moral sensation such as anxiety and sympathy that people positively participate in experiences of the subjects and as well, attention, defense and contact are nursing behaviors which are developed from moral property of care. In addition, caring behaviors need understanding of subjects as weak physical beings and giving responses. therefore, caring behaviors that response to suffering are thought to be moral planning.

Gilligan identified moral problems as a problem of personal relations, and to resolve the problems peacefully, we have to have relations between persons who have personality and further, and suggested that we need to have caring behaviors. It is thought to be persuasive to explain caring in nursing. The relation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are achieved through meeting between persons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Therefore, nurs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relations to resolve the needs of care between nurses and patients and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patients, nurses should identify what the most necessary behavior for patients is and be responsible for it.

However, Noddings suggested that internal care which is accepted as a possibility of myself through transposition of understanding from my existence to others' existence is a true care. And that is the meaning of practical nursing from the concept of internal care that we can find. To understand patients completely and provide care for them, nurses focus on real existence of patients beyond themselves and based on the need of care, they have to provide nursing care.

Gilligan suggested that the ethics of care inherent in human relations and Noddings speculates totality of patients that has been overlooked by medical field that has been affected by medical science. Care in feminine ethics is a moral attitude that sympathizes with, accepts and considers patients in others' places and finally, which is to maintain relations with myself and others, in which me and others coexist. In nursing care, nurses and patients have influences on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rather than the former provide only medical treatment through maintaining relations between them. These days, according to the logic of market economy, in medical fields wher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for profit pursuit is considered as important, the ethics of care leads us to speculate ethic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which practices care in relations for good life.

## 제 1장 서론

현대의 치료중심의 기술적 의료와 서비스의 비용효과에 대한 지나친 강조 및 전문직으로의 분업화 등의 추세는 간호의 비인간화, 관료화 현상을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각으로 간호의 본질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간호의 본질인 돌봄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활성화되었다. 1978년 유타대학에서 National Caring Conference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서 돌봄에 대한 철학적, 인식론적, 실무적 차원에 대한 확인과, 돌봄의 구조와 기능, 본질, 범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횡문화적 간호 관점으로부터 돌봄의 주요요소, 과정, 양상에 대한 탐구가 있었다(Leninger, 1981).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윤리에 대한 연구경향은 주로 윤리적 태도나 딜레마에 대한 기술적 탐구이거나(남가실, 1992; 한성숙 외 4인, 2001; 이원희, 2005; 한성숙, 2005. 등),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적 모델에 따른 조사 연구였으며(정옥분&곽경화, 2001; 정옥분&곽경화, 2002. 등), 간호윤리의 연구에 응용되는 윤리이론들은 행위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주의 윤리이론과 규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영숙, 1990; 성미혜, 1999; 김태숙, 1999. 등). 구체적으로 돌봄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는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이경순, 1996.; 김귀분&이경희, 1998; 이봉숙 외 2인, 2004; 등.).

다른 한편으로, 간호에서의 돌봄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돌봄(caring)’이라는 용어의 애매 모호성이 연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레닝거(Leninger, 1981)는 미국간호협회나 Nursing Outlook과 같은 잡지를 조사하여 돌봄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나이팅게일 이래로 caring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도 않은 채 사용되었으며 간호와 돌봄은 빈번히 구분없이 혼동되게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레닝거(1981)에 따르면 간호전문직에서는 care이라는 용어를 전문용어로(예를 들어, primary care나 team care)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들도 진단이나 증상, 병리와 관련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care라는 용어(예를 들어, medical care), 역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이병숙, 1996; Leninger(1981)의 연구에서 인용됨). 즉 보건의료



직에 포함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은 ‘나는 대상자를 돌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돌봄이란 간호의 본질을 규정짓는 존재론적 특성이자, 간호의 도덕적 가치를 규정짓는 윤리적 특성으로서 간호실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간호전문직에서 요구되는 돌봄의 도덕 실천적 의미에 대한 탐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를 돌봄으로 특징짓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성주의 시각에 따르면, 돌봄에 대한 성 차별주의적 시각이 간호에서의 돌봄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세시대의 신학과 종교적 신념은 철학이나 정치, 경제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거기서 여성은 자연적 순리에 따른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였다. 그러나 루소나 칸트, 쇼펜하우어, 굴드 등은 여성을 천부적으로 연민과 동정을 가진 존재로 보고 돌봄은 여성의 특징으로서 부과하였다. 이러한 ‘돌봄’이라는 특성에 대한 선입견은 간호전문직의 돌봄 실무에 대해 애매하고 모순된 사회인식을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에 따라 건강관리체제 내에서 성 차별주의가 형성되었고, 간호사의 돌봄 행위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었다(변영순&김남선, 1989).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이러한 현재의 의학계와 간호학계의 관계가 과학적 지식과 돌봄의 지혜로 이분화 되고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가지게 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되는 것이다(조한혜정, 2004).

지금의 의료계는 도구적 합리성, 특히 과학주의의 원리를 지향하면서 ‘수술과 통제’의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총체적 복지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과학주의에 근거한 치료중심의 의사와 환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와 이를 통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 사이에는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거기서 간호학계는 충실히 의학계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의료계보다 더욱 과학적일 것을 요구하고, 도구적 이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조한혜정, 2004).

그러나 고령화 시대, 원인 모를 병, 만성질환과 정신질환들, 제한적인 자원들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건강과 질병구조의 변화는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적 패러다임에서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돌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간호학이 간호의 특성을 지닌 전문직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호에서 돌봄의 특성에 대한 도덕 실천적 의미의 확립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실천적 지식의 핵심이며, 전인적 인

간이해를 통하여 인간간호를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근거로서의 돌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함으로서 간호 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접근 방법은 이론적 문헌고찰을 통한 해석학적 접근이며, 논문이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의 본론에서는 간호실천에서의 돌봄의 이해와 여성적 윤리학에서의 돌봄의 이해에 관하여 고찰한 후, 제 3장 결론 부분에서는 여성적 윤리학에서의 돌봄의 이해가 간호실천의 윤리적 특성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제 2장 본론

### 제 1절 간호실천에서의 돌봄의 이해

간호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돌봄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왓슨(Watson, 1975)은 간호를 지엽과 핵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때 지엽은 간호실무현장에서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소이고 핵심은 간호사와 환자의 내적인 관계의 측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왓슨은 간호사와 환자 간의 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돌봄 행위가 간호의 핵심적인 성격이라 주장하며 간호의 본질로서 돌봄을 강조하였다. 또한 파시(Parse, 1987)는 인간은 부분의 합 이상의 통합된 존재라는 이해를 기반으로 인간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간호 본질의 중심개념이라 주장한다.

이렇듯, 돌봄은 간호의 본질을 규정짓는 존재론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에서의 돌봄은 간호의 윤리적 특성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돌봄은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돌봄은 환자의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염려와 관심에서 비롯된 공감이나, 연민, 친밀감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동반한다. 더 나아가 주의 깊은 경청, 환자에 대한 옹호와 교육, 함께 있기, 접촉 등은 돌봄의 도덕적 속성으로부터 발전한 전문화된 간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얼굴에 대한 주의 깊은 응시와 가까이 다가섬, 말하기, 접촉 등은 간호에서의 돌봄이라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특성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는 것이다(공병혜, 2003-b).

이러한 간호에서의 돌봄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돌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인적(holistic) 인간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나이팅게일 이후 모든 간호학자들은 전인적 인간이해를 통해서 인간간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여기서 전인적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간호를 필요로 하는 인간, 즉 돌봄의 요구를 지닌 인간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돌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처받을 가능성(human vulnerability)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한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취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건강을 돌보는 간호행위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이다. 왜냐하면 건강을 돌보는 행위는 바로 고통을 느끼는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에서 돌봄은 고통을 느끼는 환자에 대한 응답이고, 이 응답 자체가 도덕적 기획이다. 이처럼 간호에서의 돌봄의 이해는 간호가 인간관계의 윤리적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공병혜, 2004-a).

에드워즈(Edward, 2001)는 간호에서의 돌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간호에서의 돌봄은 의도적인 것이며, 이것은 환자에 대한 신중한 관찰을 통해 그 환자가 어떤 요구를 지닌다는 믿음과 더불어 그를 돕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는 행위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돌봄의 행위는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돌봄의 관계는 돌보는 자인 간호사 자신의 관심보다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돌봄 행위는 항상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대상자의 요구와의 만남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대상자의 요구와의 만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은 상처받을 가능성과 고통을 느끼는 육체에 대한 이해이다(공병혜, 2003-b).

이처럼 간호에서의 돌봄의 의미는 취약한 신체적 존재로서 고통 받는 환자의 요구와 만나는 정서적 참여의 과정을 통한 도덕적 응답에 있다. 따라서 돌봄이 지닌 윤리적 의미가 바로 간호의 윤리적 특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제 2절 윤리학에서의 돌봄의 이해 - 여성적 윤리학을 중심으로 -

여성주의 윤리학(feminist ethics)은 여성주의(feminism)에서 비롯된 윤리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윤리학의 뿌리는 여성주의라 할 수 있다. 여성주의란 일반적으로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을 만들어 내거나 유지하는 체계와 구조 그리고 태도를 제거하려는 목표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접근에 따르는 여성주의 윤리란 행위의 주체인 성별(gender)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 윤리학의 주요 이슈와 접근 방법에 대하여 분석, 비판하고 재수정하고자 한다(공병혜, 2004-a).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남성의 천편일률적인 지배를 기록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배자로서 남성을 정당화 하는 기록은 역사를 비롯하여 소설, 법, 생물학, 관행 등 다양하다.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은 전통윤리학도 남성을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정당화 시켜왔으며, 특히 근대윤리학의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부당하게 경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여성주의 철학자 재거(Jaggar, 2001)는 전통 윤리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통 윤리학은 첫 번째, 남성의 이해관계와 권리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두 번째, 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여성은 남성만큼 도덕적인 발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네 번째, 문화적으로 구성된 남성적 특징들, 즉 독립, 자율성, 분리, 정신, 이성, 문화, 초월성, 전쟁, 죽음과 같은 것들을 과대평가 하면서, 여성적 특징들인 상호의존, 공동체, 연결, 몸, 정서, 자연, 내재성, 평화, 생명과 같은 것들을 평가 절하한다. 다섯 번째, 문화적으로 구성된 관계성, 특수성, 편파성을 강조하는 여성의 도덕적 추론방식들보다도, 규칙, 보편성, 공평성을 강조하는 남성의 도덕적 추론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여성주의 윤리학은 이처럼 여성의 도덕적 경험을 무시하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합리화 시키는 서구 전통 윤리학에 대하여 재 고찰하는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통(Tong, 1992)이 제시한 윤리학에 대한 여성주의의 접근방식에는 여성적(feminine), 모성적(maternal), 정치적(political), 레즈비언(lesbian) 접근방식이 있다. (이혜정, 2002) 길리건(Gilligan, C.)과 노딩스(Noddings, N.)를 대표로 하는 여성적 접근방식은 여성과 남성 간의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들이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도

덕적 추론, 행위, 정체성의 양식을 드러내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러딕(Ruddick, S.)과 헬드(Held, V.)로 대표로 되는 모성적 접근방식은 어머니 역할(Mothering)과 관련된 개념, 메타포, 이미지를 사용한다. 정치적 접근방식은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종속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로 행위 지표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주의, 맑스주의, 급진적, 사회주의, 실존주의, 다문화적, 전 지구적, 생태, 정신 분석학, 문화적, 그리고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이에 속한다. 레즈비언 접근방식은 여성의 억압에 기여하는 돌봄의 유형을 거부하며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성애적 관계를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한다. 호그랜드(Hoagland, S. L.)는 남성과의 분리과정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도덕 행위자로 발전하는 여성의 유일한 행위과정이라고 여긴다. 각각의 접근 방식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공통점들은 다음과 같다. 자아는 원자론적인 존재가 아닌 상호의존적인 존재다. 지식은 합리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추상적 보편자를 반성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특수자도 반성한다(이혜정, 2002).

통은 또한 여성적(feminine) 윤리와 여성주의적(feminist) 윤리를 각각 돌봄에 중점을 둔 윤리적 접근과 권력에 중점을 둔 윤리적 접근으로 구분한다. 권력에 중점을 둔 여성주의적 접근은 여성의 억압에 기여하는 규칙, 구조, 체계를 제거하고 개혁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여성은 자신들이 남성에게 의해 지배당하고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인식, 즉 여성주의 의식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접근은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공병혜, 2004-a).

이에 반하여 여성의 도덕적 특성인 돌봄(care)에 초점을 둔 여성적 접근은 주류 윤리학에서 간과해 온 동정심, 감정이입, 공감, 양육, 친절함과 같은 여성의 문화적 가치와 체험의 복원에 중점을 두며, 길리건과 나딩스, 러딕으로 대표되는 여성 윤리학자들은 공감, 동정심, 양육, 간호 등을 여성의 도덕적 장점으로 삼아 윤리이론을 구성한다. 이러한 여성적 윤리는 보편타당한 윤리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독립된 자아의 권리 추구하고 이에 대한 의무 수행에 가치를 두기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 상호관계에 대한 돌봄에 가치를 둔다. 이를 위하여 여성적 윤리는 여성적, 모성적 의식에서 출발한다(공병혜, 2004-a).

이러한 여성적, 모성적 의식은 임신, 진통, 출산, 출산 후 간호, 돌봄 등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여성의 생식적 역할과 책임에서 그리고, 여아 발달초기의 어머니와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정신분석적, 성적 발전에서 마지막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노약자를 돌보게 되는 여성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입장에서 획득된다(Tong, 1992).

길리건(1997)은 『다른 목소리로』의 서문에서 여성의 도덕적 특성이 남성의 것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고정된 성 차별주의적 시각을 거부하고 단지 여성의 도덕적 경험과 관심에도 동등하게 귀 기울일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여성 윤리학자들 중에도 특히, 나딩스(1983)는 돌봄에 의거한 윤리학은 본질적으로 여성적이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윤리학은 남성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여성과 관련된 돌봄, 관계, 공감능력 등을 여성의 도덕적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는 여성적 윤리학,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여성 윤리학자인 길리건과 나딩스가 주장하는 돌봄의 윤리학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 2-1.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

돌봄의 윤리를 발표한 길리건은 여아와 남아의 목소리의 발달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의 차이에 대하여 주장한다. 그녀는 “목소리”의 용어에 자아의 핵심이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관계적인(relational) 목소리”란 표현을 통하여 개인의 자율과 자아 그리고 자유를 합리화 하던 분리와 독립은 더 이상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길리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소리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에 의존한다. 그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행위인 것이다.(Gilligan, 1997, p18)

길리건은 도덕문제란 인간관계의 문제이며,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합리화시키는 정의의 윤리가 아닌 돌봄(care)의 윤리라고 말한다. 돌봄의 윤리는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발달과 안위에 대해 배려하고 돌봄으로서 결과적으로 나의 성장과 평화로운 인간관계의 유지를 추구한다. 이 관계적인 윤리는 전통적으로 도덕의 주된 관심이었던 이기심 대 이타심의 대결을 넘어서며, 이 윤리의 주된 도덕 논제는 더 이상 어떻게 객관성과 분리를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살피려는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전환된다(Gilligan, 1997, p23).

### 2-1-1. 길리건의 프로이트 비판

길리건은 전통윤리학에 근거하는 기존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자신의 돌봄의 윤리를 전제시킨다. 우선 최초로 남성의 발달을 중심으로 발달이론을 전개시킨 프로이트에 대하여 그녀는 초도로우(Chodorow, N.)의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최초로 남성의 발달을 중심으로 발달이론을 전개시킨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중심으로 성 심리학적인 발달이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는



여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시기하는 것으로 여성의 신체적 구조의 차이와 가족 관계의 모습의 차이에 관하여 설명하려 했으나, 여아들이 지속적으로 어머니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인다는 사실은 해명할 수 없었다. 결국 프로이드는 양성간의 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발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은 제대로 발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거세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여성은 불완전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정상적인 도덕 수준은 남성과 차이가 있으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정의감이 약하고, 삶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인 일에 자신을 내던지려는 의지도 약하다. 또한 중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도 감정적인 원천인 애정이나 증오 등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프로이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이 이루어지는 청년기에 이르면 남성의 리비도는 폭발적으로 표출되나, 여성의 리비도는 억제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성향은 이제까지 여아가 지녔던 남성적 성적 성향(masculine sexuality)이 성인기의 여성적 성적 성향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여아들은 자신들이 거세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자기 도취감에 상처를 입고 이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은 흉터와 같은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Gilligan, 1997, p51-56).

그러나 길리건에 따르면, 초도로우는 프로이드의 이러한 부정적이고 부차적인 여성 심리묘사를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기술한다. “여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감정을 자신의 것과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혹은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라난다. 더 나아가 여아들은 남아들과는 달리 자신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전 오이디푸스기적인 관계 양태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전 오이디푸스기적 관계 양태로 역행한다는 것도 여아들의 자아에 그렇게 근본적인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은 같은 성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 양육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남아들에 비해 덜 개체화 되며, 외적 대상 세계와 더욱 연속된 관계를 맺고 있고, 자신의 내적 대상 세계도 남아와 다르다.”(Gilligan, 1997, p52)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아동 초기의 보육경험을 다르게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아의 발달은 어머니로부터 독립(seperation)이 핵심적이며, 여아의 발달은 어머니와의 애착(attachment)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남성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은 개인화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 심리학자들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발달기준을 독립성 증대에 둬으로써 여성의 이러한 차이점을

발달장애로 진단한다. 즉 여성의 독립실패는 개념상 발달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Gilligan, 1997, p52-53). 그래서 길리건을 대표로 하는 여성 윤리학자들은 이처럼 여성의 도덕적 경험을 무력화 시키고, 여성을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합리화 시키는 기존의 심리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 2-1-2. 길리건의 콜버그의 비판

길리건이 돌봄의 윤리를 주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녀의 스승이자 동료교수인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콜버그의 인지 도덕 발달 이론의 연구표본은 남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 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콜버그의 이론은 어떤 내용인가? 콜버그는 철학적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롤스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심리학적으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을 발전시켰으며, 교육학적으로는 듀이의 성장이론의 영향을 받아 종합적인 인지 도덕 발달이론을 확립하였다(이병승, 2002). 콜버그에 의하면 도덕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수준 6단계의 발달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 수준은 전인습(pre-conventional level)수준, 인습(conventional level)수준, 후인습(post conventional level) 수준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6단계로 나누어진다. 6단계는 전 인습 수준의 1. 처벌과 복종의 단계와 2.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인습 수준의 3. 개인 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와 4. 사회체제와 양심보전의 단계, 후 인습 수준의 5.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내지 유용성의 단계와 6. 보편적 윤리적 원리의 단계가 그것이다. 1단계의 행위자는 옳고 그름을 결과로 돌아오는 상, 벌, 혹은 행위를 명령하는 자의 물리적, 상징적 힘의 정도에 기준을 둔다. 2단계에서 옳은 행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며, 돌아오는 결과보다는 행위자체를 통한 행위자의 욕구충족이 기준이 된다. 3단계에서 옳은 행위는 주위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인정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가 되며, 남들이 부정하는 행위는 그른 행위이다. 4단계에서의 옳은 행위는 권위에 복종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행위이다. 5단계에서 옳은 행위는 사회전체의 비판적인 고려를 통해 합의된 법규와 질서에 부합하려는 행위이다. 6단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 채택한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Kohlberg, 1985). 보편적 원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관성,

보편성 등이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도덕원리는 만인의 권리에 대한 평등성과 상호성을 보장하는 보편적 정의의 원리이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성숙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도덕적 성숙자는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콜버그가 말하는 도덕적 성숙은 원칙화된 정의감을 가지고, 도덕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도덕과 법을 구별할 수 있고, 원칙들 간의 충돌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혜정, 2002).

그러나 길리건은 콜버그의 이론과는 달리 여성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지를 뿐 아니라 돌봄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의 삶의 순환(life cycle)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은 양육자, 보호자, 보조자 등인데, 이것은 여성 자신의 자아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짜 나가는 직조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렇듯 여성들이 남성들을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경제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발달 심리이론 속에서도 돌봄을 당연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개인화와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강조가 성인기 분석에까지 이어지고 성숙이 개인적 자율과 동일시되는 이론 체계 하에서, 여성들이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보였던 것이다(Gilligan, 1997, p63-64). 그러나 길리건은 만약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도덕적 발달이론을 구성해 나간다면, 도덕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권리의 충돌이 아니라 책임의 충돌이며, 그 문제의 해결책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맥락적이며 이야기체적인 사고방식이 중요시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공정성으로서의 도덕관이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도덕 발달의 중심에 두는 것처럼, 돌봄과 관련된 도덕관은 책임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도덕발달의 중심에 둘 것이다(Gilligan, 1997, p68). 그렇다면 길리건이 주장하는 여성의 목소리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것은 남성적인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 2-1-3. 도덕적 추론방식의 차이.

길리건은 콜버그의 하인즈의 딜레마에 대한 제이크(Jake, 11살)와 에이미(Amy, 11살)의 응답방식에서 여아와 남아가 도덕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새로운 도덕이론을 이끌어낸다.

## [하인즈의 딜레마]

유럽 어떤 마을에서 한 여인이 암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도 같은 마을의 약사가 최근에 개발한 라듐의 일종이다. 이 약사는 약값을 2000달러를 요구하는데, 이는 그가 약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의 10배이다. 병에 걸린 여인의 남편인 하인즈는 그 돈을 벌리기 위해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탁하고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가 모은 돈은 약 1000달러에 불과했다. 하인즈는 약사에게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 약을 반값에 팔든지 아니면 나중에 약값의 반을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는 거절했다. 하인즈는 절망에 빠져서 약사의 가게에 침입하여 약을 훔쳤다. 하인즈가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일까?

### → 제이크의 답변

사람의 생명은 돈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약사는 단지 1000달러만 벌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 하인즈가 그 약을 훔치지 않는다면 그의 아내는 죽을 거예요. (왜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지?) 왜냐하면 약사는 나중에 암에 걸린 부자들한테서 10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하인즈는 다시 아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얻을 수 없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인즈의 아내와 똑같은 사람은 다시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인즈가 아내를 사냥하지 않는데도 그 약을 훔쳐야 하나?) 그것은 미워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만약 하인즈가 붙잡힐 경우 판사님은 아마도 그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약을 훔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나?) 법도 잘못 되었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 판사님은 하인즈에게 가장 가벼운 벌을 내려야 해요.

### → 에이미의 답변

글쎄요, 그래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약을 훔치는 것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돈을 빌린다고 말이죠. 그래도 그는 정말 약을 훔쳐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의 아내도 죽어서는 안 되죠. ... 만약 그가 약을 훔친다면 아내를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마도 감옥에 가야겠죠. 그러면 그의 아내는 더 아프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약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좀더 얘기를 해보고 돈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아내가 죽는게 왜 그쁜 일이지요?) 그녀가 죽으면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면접자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 콜버그의 딜레마 구성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았지만 에이미의 답변 - 하인즈가 아내를 사랑하건 안하건 간에 약을 훔쳐서도 안되고 아내를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되는 질문에 자신이 틀린 답을 말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자, 점차 자신감을 잃고 답변하는데도 자신 없어 한다. 그리고 다시 하인즈가 약을 훔쳐서는 안 되는가 하고 묻자) 왜냐하면 그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 만약 그걸 훔쳤다고 해도 어떻게 투약하는지를 몰라서 아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Gilligan, 1997, p78-81).

제이크는 그것을 하나의 수학기제로 규정하고 연역적인 논리를 이용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는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같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따라서 판사도 하인즈가 약을 훔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것으로 본다. 제이크의 판단들은 아직 콜버그의 3, 4단계가 혼재하는 인습적 수준에 속하지만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연역 논리를 이용하고, 도덕과 법을 구분하며, 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 11세 남아는 콜버그가 도덕적 성숙과 동일시하는 원칙주의적인 정의관에로의 이행과정에 있다(Gilligan, 1997, p79-81).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딜레마에 대한 에이미의 응답은 콜버그의 이론에 의하면 논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미비해서 발달이 저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인즈가 약을 훔쳐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녀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태도로 대답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에이미는 이 딜레마를 인간 활동에 적용되는 추상적인 수학기제로 보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개입된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에이미는 하인즈와 아내의 인간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아내가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내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간관계 속에서 고려한

다. 이러한 사실은 “아내가 죽으면 그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슴이 아플 것이기 때문”이라는 에이미의 대답으로 알 수 있다. 에이미는 약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인즈의 아내의 필요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Gilligan, 1997, p81-82).

즉, 이 두 아이들은 하인즈의 딜레마에서 서로 다른 도덕문제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제이크는 이 문제를 생명권과 재산권의 충돌로 생각하여 연역적 논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절도를 선택한 다음, 후에 일어날 분쟁을 법에 호소한다. 그는 가치의 계층 구조를 설정한 다음 다시 이를 권력의 계층구조로 대체시킴으로써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람들 간의 충돌 상황을 비인격적인 법적 청구 간의 대립으로 대체시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제이크는 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공정성의 논리를 통해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사람들 간의 실제적 상황으로부터 도덕문제를 추상화 시키고, 가치를 서열화 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서열적 계층구조에서는 불가피하게 우열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항상 폭력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Gilligan, 1997, p83).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이미의 딜레마 구성에서는 계층구조가 연결의 그물조직, 즉 대화를 통해서 유지되는 인간관계의 그물조직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그물조직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균형적인 지배-종속, 가치의 계층화 문제가 아니다. 에이미의 세계는 인간관계로서 서로 공고히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연결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과 서로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는 자각을 가진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에이미에게는 약사가 부도덕하게도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하인즈의 아내를 고려해 주지 않고, 그녀의 필요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Gilligan, 1997, p86-88). 이는 다시 설명하면, 처음부터 에이미는 면접자가 던진 질문과는 다른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에이미가 이 딜레마에서 문제 삼은 것은 하인즈가 문제로서 제시되는 ‘행위(약을 훔치는 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가 아닌 하인즈가 아내를 위해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가?’ 즉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위, 필연성이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고려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이크가 “약을 훔치는 행위가 하인즈에게 있어서 옳은 행위”임을 판사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이미도 “만약 하인즈와 약사가 서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면, 분명 절도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아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제이크가 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에이미는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나누어 가진다면 절도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하에 이 딜레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두 아이 모두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이크는 공적인 논리와 법체계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반면, 에이미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Gilligan, 1997, p83). 콜버그의 발달 단계론에 근거하면, 에이미의 판단들은 제이크의 판단보다 한 단계 낮은 것처럼 보인다. 에이미는 법과 도덕의 개념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외부로부터 주입된 도덕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능동적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의존과 대화를 통해 도덕적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미의 세계관을 인간관계의 그물조직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돌봄의 윤리의 핵심적인 통찰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Gilligan, 1997, p85).

두 아이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세계관이나 도덕의 구성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자아와 인간관계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자아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 2-1-4. 자아와 인간관계

##### → 제이크

난 내가 열한 살이라는 것부터 시작할래요. 난 제이크죠, 난 내가 00(마을)에 살고 있다고 덧붙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를 이루는 큰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진 의사라는 것도요. 이것도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 난 학교가 따분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날 다른 애들과 구분시켜 주니까요. ... 난 장난을 많이 해요. 난 공부하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

서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 그리고 난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난 아직도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난 나이에 비해 키가 큰 편이에요(Gilligan, 1997, p91).

→ 에이미

글쎄요. 난 학교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살고 싶어요. 난 과학자나, 뭐 그런 비슷한 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나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지?) 글쎄요, 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과학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Gilligan, 1997, p91).

위의 자신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제이크가 세계에서 자신이 차지한 특정한 위치를 묘사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신념 그리고 키를 통해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한 반면, 에이미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행위, 즉 자신이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을 세계와 연결시킨다. 그래서 제이크는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완벽의 이상(ideal of perfection)을 사용하며, 에이미는 자기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돌봄의 이상(ideal of care)을 사용한다. 에이미는 세계와 관련시켜 자신을 위치 짓고 과학을 통해서 남들을 돕는 삶을 선택하는 반면, 제이크는 자신의 성격, 지위, 그리고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한에서만 자신과 관련시켜 세계를 위치 짓는다(Gilligan, 1997, p91). 제이크의 관점에서 자아가 독립을 통해서 규정된 자아, 추상적인 완벽의 이상에 의거해 측정된 자아를 의미한다면, 에이미의 관점에서 자아는 연결을 통해서 규정된 자아, 돌봄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평가되는 자아이며, 끊어지지 않은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자아이다.

그러나 길리건은 서로 다른 자아관을 두고 좋음-나쁨, 옳음-그름을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길리건은 그녀는 이 두 부류의 자아관이 모두 지속적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의 자아관에 따른 인간관계관이 인간 삶의 순환에 본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경험은 각각 정의의 윤리와 돌봄의 윤리를 지지한다. 정의의 윤리에서는 자아와 타아가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 받아야 하며, 돌봄의 윤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도덕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통 받지 않는다(Gilligan, 1997, p135).

## 2-1-5. 책임

(책임이란 무엇일까?)

→ 제이크

책임이란 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고려하는 거예요. . . 왜냐하면 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야 하고, 또 내가 그들한테 피해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게 그런 행동이겠죠.

→ 에이미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난 이걸 할래, 또는 저걸 할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종류의 책임들도 있나?) 글썄요, 나 자신에 대한 거겠죠. 만약 어떤 게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데 만약 그걸 해서 다칠 수도 있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그러 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게 나에 대한 책임이니까요(Gilligan, 1997, p93).

제이크는 책임에 대해서도 수학의 공식을 적용한다. 그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고려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한다. 제이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들도 독립된 개체이고, 독립된 개체들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을 가능성과 타인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 이를 지키고자 한다. 즉, 제이크는 독립성을 전제하고 난 후, 관계적인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 책임이란 타인의 영역을 침입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규칙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수용하면 행위자의 자율성과 공동체 내에서 행위자의 삶은 안전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에이미는 절대적인 규칙을 제시하기보다, 맥락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에이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가를 고려한다.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해 자신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본다. 이 여아의 생각에 따르면 남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남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침범의 행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돌봄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에이미는 관계성을 전제하고 난 후 개인의 독립성을 고려한 것이다.

#### 2-1-4. 여성의 도덕적 성숙과 도덕발달

지금까지 길리건의 해석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서로 다른 두 목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길리건이 이야기하는 여성의 도덕적 성숙과 도덕발달은 무엇인가? 먼저 여성의 도덕적 성숙이란 타인-지향적 요구와 자아-중심적 관심을 통합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 성숙이란 돌봄의 윤리가 발달해 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세 가지 관점과 두 단계의 과도기를 겪는다(이혜정, 2002).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여성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돌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중요시된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만을 돌보던 것이 이기적이라고 자신을 비판하는 과도기가 따르고, 이러한 비판을 통해 자아와 타아의 연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형성된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책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정교화되며 이러한 책임관이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보살피려고 하는 모성적 도덕과 결합된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중요시 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의해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은 제외됨으로서 인간관계의 평형이 깨어지게 되므로 두 번째 과도기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상호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자아와 타아의 연결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이기심과 책임의 대립을 해소하게 된다(Gilligan, 1997, p152).

이 세 관점에서 중심이 되는 점은 자아와 타자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의 돌봄이다. 돌봄의 원리는 도덕 판단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돌봄은 구체적인 인간관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대응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이지만, 동시에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가해를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도덕원리가 된다(Gilligan, 1997, p178).

## 2-2. 나딩스의 돌봄 관계의 윤리

길리건이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공감능력, 책임감, 형평성 등의 개념을 통해 여성의 윤리적 성숙과정을 밝혔다면 나딩스는 이와는 다르게 돌봄의 내적인 성격을 밝혀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때 돌봄의 내적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수용하면서 타인과 함께 보고, 느끼며,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공병혜, 2003-b).

나딩스는 전통윤리가 아버지의 언어로, 즉 남성적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신이 제시하는 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다시 말해서 여성적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윤리학은 도덕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추구해 왔는데, 이때의 철학적 탐구라는 것은 대체로 도덕적 술어를 가지고 도덕적 추론을 통해 서열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그들이 순수 혹은 논리적 이성, 실천 혹은 도덕적 이성간의 차이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수학적 방법에 따라 도덕적 추론을 하였으며,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등의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론적, 인식론적 분석을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도덕이란 무엇인가?(What is morality?)’란 질문은 바로 ‘도덕적 판단이란 무엇인가?(What is a moral judgement?)’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버지의 언어라고 부르며, 따라서 아버지의 언어로 구성된 윤리는 정당화, 공정성, 원칙과 명제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윤리는 로고스(Logos), 다시 말해서 남성적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며 법과 원칙에 의거한 윤리이다(Noddings, 1984, p2-3).

이와 달리 에로스를 통한 어머니의 접근 방식은 여성적 관점이다. 여성적 관점은 여성의 특징인 수용성(receptivity), 연결성(relatedness), 그리고 감응성(responsiveness)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적 관점인 것이다(Noddings, 1984, p2-3).

나딩스는 여성이 도덕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남성의 도덕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기하학적 문제해결과정이라 한다면 여성의 의사결정은 구체적 상황 속의 구체화 과정이다. 여성은 스스로를 타인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떠맡는 자로 인식하며, 보편 원칙들이나 규칙들이 아닌 감정, 필요, 개인적 이상을 행위의 이유로서 제시한다. 따라서 여성은 도덕적 지식 혹은 진리를 증명하거나, 추론하지 않고

도 일관성 있고 현명한 도덕적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딩스(1984)는 이러한 여성적 윤리를 돌봄에 의거한 윤리라 정의하며, 돌봄의 윤리에서는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기쁨(Joy)을 인간의 기본정서로 여긴다.

### 2-2-1. 나딩스의 돌봄의 관계

돌봄(care)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감정인가, 태도인가? 아니면 덕인가? 돌봄을 최초로 윤리영역으로 끌어온 길리건이 돌봄의 개념을 여성의 도덕적 사유 모형으로 규정지은 반면에, 나딩스는 돌봄을 근본적인 윤리적 현상으로 이해한다(이혜정, 2002). 나딩스에 의하면 모든 윤리체계는 관계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윤리 이론이란 도덕 행위자가 어떻게 외부의 존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관계가 존재론적으로 기본적인 것이고, 돌봄 관계는 윤리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된다(Noddings, 1984, p3).

그렇다면 나딩스가 주장하는 관계란 무엇인가? 나딩스는 인간관계란 철학자들의 정신 속에서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만나는 관계가 아닌 상호 교호적으로 만나는 실질적인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교호적인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놓는다는 것은 인간의 만남과 감정적인 응답을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사실로 간주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만남이 관계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다. 이때의 관계적인 만남은 감정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친밀한 만남으로서 독립된 자아의 권리추구 속의 알팍한 만남과 구분된다(Noddings, 1984, p4).

### 2-2-2. 내부로부터의 진정한 돌봄

나딩스는 외견 상 돌봄 행위와 내부로부터의 돌봄 행위를 구분하며, 타자의 실재성을 파악하려 하는 것이 내부에서 우리나라 돌봄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나딩스가 주장하는 내부로부터의 진정한 돌봄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돌봄이란 내가 돌봄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살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나 자신의 실재성에서 타자의 실재성으로의 이해관심의 전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자아로부

터 벗어난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다(Noddings, 1984, p4). 이때, 자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윤리적 실재성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다시 타인의 실재성을 내 자신의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Noddings, 1984, p14).

따라서 보살핀다는 것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내가 타인의 실재성을 나의 가능성으로 이해할 때, 나는 타인의 참을 수 없는 일을 감축해 주며, 고통을 완화해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꿈을 실행되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타인과 이런 종류의 관계맺음 속에 있을 때 나는 타인의 실재성을 나의 진정한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내가 타인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Noddings는 ‘나는 원한다’와 ‘나는 해야 한다’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이혜정, 2002).

타인의 실재성을 나 자신의 가능성으로 보고 그의 실재성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는 행위 해야 한다.’고 느낀다. 나는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 해야 하는 것이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감정이 지속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행위 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그의 실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러한 결단의 지속적인 부활은 내적인 관점에서 나온 돌봄(caring from the inner view)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Noddings, 1984, p18)

따라서 돌봄은 자아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것은 돌보는 사람이 돌봄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전념(engrossment)하며 동기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Noddings, 1984, p16). 전념은 오랜 시간동안 잠재되어 있는 것이며 동기 유발적 에너지는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흐른다. 물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념과 동기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내가 나 자신이 윤리적 자아와 윤리적 이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나는 그에게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딩스는 돌보는 사람의 태도를 처분할 수 있음(dispoability)의 태도라 주장한다. 이는 즉각적으로 자신을 처분할 수 있는 준비 혹은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처분할 수 있음은 자신을 사용하고, 이용 가능한 존재로 만들 준비를 의미한다. 자신을 준다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을 투자하고 줄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돌

보는 사람은 돌봄의 행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보살핀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며, 응답하는 것이며, 수용하는 것이다. 돌보는 사람은 타인에 전념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처럼 돌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수용의 태도가 있다면 돌봄을 받는 이에게도 요구되는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돌봄의 관계에서는 상호성은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 A가 B를 보살피며, B가 A로부터 돌봄을 받음을 인정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Noddings, 1984, p17-18).

### 2-2-3. 돌봄의 원과 사슬

그렇다면 돌봄 행위는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있는 존재에게만 돌봄이 일어나는가? 우리와 멀리 있는 존재에게는 돌봄은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돌봄의 행위는 편협한 것이 아닌가? Noddings는 이러한 질문을 돌봄의 원과 돌봄의 사슬의 개념을 통하여 대답하고자 한다. 그리고 돌봄의 원과 사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리 자신은 돌봄의 동심원 중앙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는다. 내적인 친밀한 원 속에서 사랑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원에서는 돌봄의 행위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멀리 있는 원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어쩌면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돌봄을 실행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형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내적인 원과 연결된다. 그리고 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원안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잠재적인 돌봄에 대한 원들을 형성함으로써 돌봄의 사슬을 통해서 그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돌봄의 원과 사슬을 통해서 친밀하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보살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돌봄의 이행성(transitivity)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지의 사람들과 이미 내적인 원안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잠재적 돌봄이라는 새로운 전체 원을 형성함으로써 돌봄의 사슬들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Noddings, 1984, p46-47).

그렇다면 나와 돌봄의 원과 사슬로서 연결된 유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돌봄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보살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때 돌봄 제공자인 주체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 이에 대하여 나딩스는 우리는 돌봄의 원과 사슬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구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돌봄(natural caring)과 윤리적 돌봄(ethical

caring)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Noddings, 1984, p46-47).

#### 2-2-4. 나딩스의 도덕적 감정

##### - 자연적 돌봄의 감정과 윤리적 돌봄의 감정 -

나딩스는 도덕적 감정(moral feeling)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Noddings, 1984, p46-47). 하나는 자연적 돌봄의 감정(natural caring)이며 다른 하나는 윤리적 돌봄의 감정(ethical caring)이다. 자연적 돌봄이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행위 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성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식을 위해 돌보는 행위를 하는 어머니는 자연적인 성향에 의해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돌봄 없이는 윤리적 돌봄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윤리적 돌봄은 바로 자연적 돌봄의 감정에 대한 기억(rememberence)의 반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 ‘나는 해야 한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다’라는 갈등을 느낄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내가 받았던 돌봄의 순간들을 기억한다. 나는 돌봄을 받거나 보살폈던 순간들의 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기억으로 도달해서 나의 행동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Noddings는 윤리란 사랑이 아닌 의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윤리를 자연적 경향성과 구별하였다. 그러나 노딩스는 윤리적 돌봄은 자연적 돌봄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의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돌봄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Noddings, 1984, p79-80).

#### 2-2-5. 나딩스의 ‘의무’에 대한 고찰

나딩스는 자연적 돌봄 안에서 “나는 해야 한다(I must)”와 “나는 무언가 원한다(I want to something)”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가령 아이가 한밤중에 이유 없이 운다면 이때 나는 나의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와 나는 무언가 해주길 원한다는 감정이 거의 분리될 수 없이 함께 일어난다. 이때의 나는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명령이 아닌 “나는 원한다.”에 수반되는 명령이다. 이러한 당위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의 당위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나는 타인을 돌봐주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감정 즉 윤리적 돌봄의



감정이 요구된다. 나는 내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여기며 설령 그 사람에 대해 자연적 돌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진정한 도덕적 감정으로서는 즉 ‘나는 해야 한다(I ought).’ 다시 말해서 행위 하기로 결정한 감정(sensibility)을 느껴야 한다. 돌봄의 관계 속에 있는 명령(imperative)은 정언적(categorical)이다 관계가 아직까지 설정되지 않고 거부될 수도 있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hypothetical)이다(Noddings, 1984, p82). 그리고 Noddings는 다른 존재에게 반응하는 일을 본능적인(instinctive) 것으로 보지 않고 타고난(latent)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반응은 타고난 것이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서 돌봄 관계의 연속성 속에서 점차 발전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이고자 하는 욕구는 연결되어 있으려는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욕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연결되어있으려는 근본적인 욕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왜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돌봄 관계에 대한 평가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의무의 원천은 돌봄의 관계성에 내가 부여한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는 실제적 돌봄과 돌봄을 받는 일의 결과로서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돌봄 상황에서의 좋음(Goodness)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Noddings, 1984, p88).

또한 Noddings가 주장하는 의무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무한정할 수 없는 관계에 의해 제한된 의무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의 내적인 순환 안에서 적절하게 돌보는 사람으로서 만나고 우리의 내적인 순환과 연결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무의 요구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로 그 관계 자체가 의무에서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 안에서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해야 한다’를 권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기아 어린이나 동물에 대한 의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돌봄의 윤리는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나딩스는 두 개의 기준을 제시한다(Noddings, 1984, p88). 첫 번째 기준은 현재 관계의 잠재성(the potential for present relation)이며, 이것은 절대적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역동적인 잠재성(the dynamic potential for growth in relation)이며 이것은 점점 증가하는 호혜성과 상호성의 잠재성을 포함해서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현재 관계에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 돌보는 자로서 응답해야 하고, 이 때 관계 속의 명령은 정언적(categorical)이다. 그리고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관계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이때의 명령은 가언적

(hypothetical)이다. 내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나는 해야 한다. 그러나 상호성을 기대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물과 식물은 사람에게 응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관계에는 두 번째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관계의 가능성이 점점 성장한다면 의무도 그만큼 커질 것이며, 응답의 요구가 절박해진다면, 나의 의무도 절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과 어린이에 대한 의무가 충돌하였을 경우, 어린이는 동물보다 그 관계의 잠재성이 역동적이므로 우리는 어린이의 돌봄의 요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딩스는, 윤리학에 있어서 인간 자신의 내적인 자아와 감정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 하는 것은 특히 윤리학에서는 재앙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원칙의 윤리가 지닌 보편화의 가능성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원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원칙이란 애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보편화 가능성이란 A란 상황에 처한 모든 혹은 대부분의 사람은 B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 속의 조건들은 실은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A란 상황 속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주관적 조건들이 모두 B란 행위를 하게 될 만큼 충분히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Noddings, 1984, p84-85).

#### 2-2-6. 돌봄의 기준

Noddings는 도덕적 판단보다는 도덕적 지각능력(moral perception)과 감성(sensibility)을 더 중요시 여긴다. 즉 감정이나 감성을 도덕의 핵심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기 고양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Noddings, 1984, p92). 이 경우, 전통윤리학의 관점에서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도덕법칙으로부터 ‘아기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은 그른 일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며, 아이에게 “고양이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딩스의 돌봄의 윤리의 관점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접근한다. “그만해. 자, 봐 너는 고양이를 해치고 있어” 라고 말한 후 고양이를 쓰다듬고 달래면서 “자, 봐. 아,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보여 줄 것이다. 이때의 ‘상처를 주고 있어.’ 등의 표현과 고양이를 달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지시와 판단이 아닌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방은 자신이 고양이에게 상처를 주고

이를 통해 고양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각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점차 개발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감정의 상기를 통해서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나딩스는 도덕적 행위의 토대에는 감정(feeling)이나 정서(sensitiment)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감정이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딩스의 돌봄의 윤리는 상대주의와도 유사하다할 수 있으나, 나딩스는 자신의 이론은 상대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윤리적 행위의 중심에 놓여있는 돌봄의 태도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돌봄의 태도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즉 돌보는 사람은 돌봄의 수용성(receptivity of caring)을 통해서 알고 느낀 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따르는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Noddings, 1984, p92).

윤리학에서의 또 다른 주요 이슈인 정당화에 대해서도 나딩스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전통윤리학에서는 행위의 동기(motivation)보다 정당화(justification)와 논리(logic)에 주목하였다. 도덕적 증명은 도덕적 행위를 원칙에서 추론하는 것이며,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평가와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딩스에 의하면 추론과 진술이 정당화되는 방식으로 도덕적 진술이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진술은 자연적 돌봄에 의거한 합리적인 태도인 도덕적 관점이나 태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도덕적 진술을 이러한 태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도덕적 관점을 취하기 위한 정당화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 관점은 정당화의 개념에 앞서 있는 것이다(Noddings, 1984, p95). 오히려 돌봄의 윤리는 행위의 동기유발을 문제 삼으며 그것은 돌보는 자로서의 자신이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편에서 행위하며, 타인 안에서 내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영향을 끼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다(Noddings, 1984, p95).

## 제 3장 결론

### - 여성적 윤리와 간호에서의 돌봄의 윤리 -

지금까지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와 나딩스의 돌봄 관계의 윤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윤리이론이 간호전문직에서의 돌봄의 도덕 실천적 의미와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윤리에 어떠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가?

길리건은 도덕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지닌 인격과 인격의 관계맺음, 더 나아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맥락적인 책임과 대화와 돌봄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러한 길리건의 책임과 대화, 돌봄 행위의 개념에서 간호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는 대상자의 돌봄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단순히 문제해결만을 위한 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각의 상황을 지닌 인격간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대상자 간의 관계를 통한 돌봄에 대한 응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대상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그리고 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와 이해과정, 돌봄에 대한 책임의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도덕 실천적 돌봄행위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나딩스(1984)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만남과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관계를 윤리적으로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외견상의 돌봄 행위와 내적인 돌봄 행위를 구분하여, 나의 실재성에서 타인의 실재성으로의 이해전치를 통하여 타인의 가능성이 내 자신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적인 돌봄이야말로 진정한 돌봄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적인 돌봄 행위의 개념에서 간호실천에서의 돌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요구

이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대상자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간호사는 대상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자신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실재성에 집중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얻어진 대상자의 돌봄 요구에 근거하여,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제공된 간호가 요구에 적합할수록 대상자의 회복 및 증진은 활발해진다. 다시 말해, 대상자의 실재성이 곧 간호사의 가능성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나딩스의 이러한 주장은 간호에서의 돌봄 실천의 이해에 있어 한계를 드러낸다. 간호사는 온전히 자신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실재성에 집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간호사에게는 대상자의 요구에 집중하고, 이에 응답함에 앞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숙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간호를 제공하였으나, 대상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에게 제공된 간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럴 경우 간호행위는 윤리적으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가? 나딩스의 이론에 근거하면, 돌봄의 요구로부터 회복이라는 결과가 없더라도 간호에서의 돌봄행위는 도덕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고통과 취약함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간호사는 동정과 공감 등과 같은 도덕적 감성과 정서, 지각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딩스는 이러한 감성과 지각능력이 도덕적 행위의 기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와 지각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도덕적 행위라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돌봄의 행위 또한 도덕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윤리의 변화에서 길리건과 나딩스의 여성적 윤리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도구적 합리성과 과학주의의 원리를 지향하며 발전해왔고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총체성은 존중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상자에게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학계로 하여금 질병치료 중심의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적용해 온 의학계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간호학의 존재론적, 윤리적 특성인 돌봄에 대한 연구보다는 과학적인 지식체 개발에 중점을 맞추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시장은 ‘질병에서의 회복’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양질의 삶의 질

현'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주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요인들에 대한 논리적 판단과 더불어, 감성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나'와 '우리'에 대한 전인적 인간이해에 기초한 돌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적 윤리의 시각에 따라서 의료계의 변화에 따른 간호실천으로서의 돌봄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성적 윤리학에서의 돌봄이란 타인의 입장에서 이들과 공감하고 이들을 수용하며, 배려하고, 궁극적으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두텁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꾸는 행위이며, 이 관계 안에서 나와 타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통하여 대상자를 돌본다. 간호사는 대상자와 공감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돌봄을 제공하는데, 이때 간호사-대상자의 관계는 간호를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게 되는, 공고히 연결된 관계이며, 이 관계 속에 간호사와 대상자는 존재하게 된다. 즉 간호사는 간호사-대상자간의 관계 속에서 환자에게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실천에서의 돌봄의 특성을 여성적 윤리학의 시각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렇다면 간호실천에서의 돌봄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여성적 윤리학에서의 돌봄의 이해가 가지는 한계점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적 윤리학에서의 돌봄은 상호 교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인다. 왜냐하면 상호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간호 상황도 있기 때문이며, 예를 들어 중환자실의 혼수상태의 환자라든지, 마취상태인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여성적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돌봄의 이해는 임상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공병혜, 2003).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Gilligan과 Noddings의 여성적 윤리는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돌봄의 관계를 위한 정서적 태도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해 응답하는 도덕적 책임에 대한 윤리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공병혜(2001), 생명의료 윤리학과 간호 :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 공병혜(2003-a), 간호윤리의 정체성을 위한 철학적 탐구, 범한철학, 30, 49-80
3. 공병혜(2003-b), 돌봄 윤리를 위한 미감적 - 윤리적 패러다임, 대한간호학회, 32(2), 364-372
4. 공병혜(2004-a), 덕 윤리의 관점에서 본 간호실천과 보살핌의 태도, 범한철학, 34, 83-108
6. 공병혜(2004-b), 여성주의 윤리와 생명윤리, 범한철학, 32, 113-142
7. 공병혜(2004-c), 포스트모더니즘과 간호의 이슈, 대한간호학회지, 32(3), 389-399
8. 김귀분, 이경희(1998) 노인성 치매 환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대한간호학회지, 28(4), 1047-1059
6. 김영란(2004), 여성복지정책적 함의 : 젠더화된 사랑-낭만적 사랑 · 모성애-과보살핌노동, 사회복지정책, 18권, 199-221
7. 김태숙(2003), 간호학과와 의학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29(4), 892-902
8. 남가실(1992), 1992년 간호대학 학술토론회 ; 간호학에서의 윤리적 문제 - 실무현장에서의 간호윤리, 이화여대 간호과학연구소
9. 조한혜정(2004), 페미니즘과 질적간호연구 : 페미니즘 : 보살핌의 노동과 가치에 대하여,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43-55.
9. 변영순, 김남선(1989), 돌봄개념의 의미에 대한 연구, 간호과학, 1,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84-95.
10. 성미혜(2002), 임상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29(3), 551-562

11. 이경순(1996),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경험, 정신간호학회지, 50(2), 50-58
12. 이봉숙, 김춘미, 이명선(2004), 여성가족 간호자의 치매노인 돌봄경험 - 여성주의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4(5), 881-890
13. 이병숙(2001), 돌봄의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6(2), 337-344.
14. 이병승(2002), 보살핌 윤리의 정당화 논의, 교육철학, 21, 133-151.
15. 이영숙(1990),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2), 249-270
16. 이원희(2004), 간호윤리 교육과 연구의 동향, 간호학탐구, 13(1),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24-34
17. 이혜정(2002), 여성주의 윤리학에 관한 연구 - 길리건, 노딩스, 리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18. 정옥분, 광경화(2001), 성년기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과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 , 대한가정학회지, 39(12), 225-238
19. 정옥분, 광경화(2002), 중년기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 과정의 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25
20. 정혜경, 홍성하(2002), 보살핌의 현상학 - 간호학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철학과 현상학, 18 , 176-360
21. 한성숙(1992), 간호전문화와 생명윤리 : 간호실무와 윤리문제, 이화여대 간호과학연구소
22. 한성숙, 박현애, 안성희, 오효숙, 김경운(2001), 간호학생이 경험한 간호윤리 문제와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31(5) , 846-857
23. Alison Jaggar(2001), "Feminist Ethics", Encyclopedia of Ethics, Lawrence C. Becker and Charlotte. Becker, eds.,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528-529
24. Gilligan, C.,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 : 허란주(1997) 역, 동녘
25. Kohlberg, L.,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I,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도덕발달의 철학) : 김민남(1985) 외 공역, 교육과학사.



26. Leininger, M.(1981), The phenomenon of Caring : importance, reach question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
27. Noddings, N.(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 of California P.
28. Rosemarie, T.(1993), Feminine and Feminist Ethic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